

안용복 사건, 과거시험에 출제되다

사료 발견과 그 의미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1. 사료발굴 경위와 저자 소개

1693년에 일어난 이른바 ‘안용복 사건(울릉도 쟁계)’을 숙종이 과거시험에 출제하여 대책(對策)을 구하게 했음을 밝혀주는 문서가 처음 발견되었다.

경상북도 의성지역의 선비였던 신덕함(申德函, 1656~1730)의 문집 안에 실려 있는 대책이 그것이다. 이는 숙종 연간 최대 외교 현안이었던 안용복 사건, 즉 ‘울릉도 쟁계’ 문제를 가지고 출제된 과거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지다. 시험문제 1장 반, 답안지 12장 반 모두 14장(A4사이즈)으로 된 이 사료는 ‘울릉도 쟁계’로 인한 대일(對日)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숙종이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응시자들의 의견을

1 신덕함이 지은 만사가 『항재집(恒齋集)』(滄逸, 1631~1698)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신덕함은 이송일, 이취일, 이현일 집안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불망기』(필사본, 연대미상) 안에 「아주 申氏世系」, 박주, 「17세기 후반 경상도 의성현의 우씨 열녀의 삶과 생활」, 『史學研究』 제 83호(2006. 9) 163쪽에서 재인용.

3 이 저술에는 自序와 跋, 기타 君臣內篇, 君臣外篇, 父子內篇, 父子外篇, 夫婦內篇, 夫婦外篇, 兄弟內篇, 兄弟外篇, 師友內篇, 師友外篇, 變禮 등이 실려 있다.

4 전책 : 임금이 직접 책문(策問)하고 자대부가 대책(對策)하는 형식의 과거 형태를 말함.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전형적인 ‘책문(策問)’과 ‘대책(對策)’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 사료가 과거시험에 출제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서는 2011년 8월 중순 경상북도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분과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일 변호사가 의성의 신덕함 후손으로부터 입수하여 필자에게 문헌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그 내용이 밝혀졌다.

이 글을 지은 신덕함¹⁾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는 중유(仲游), 호는 농음(農音), 아버지 신희석과 어머니 풍산 홍씨 사이의 장남으로 경상도 의성현 수정리에서 태어나 1730년 75세 나이로 졸했으며, 본관은 아주(鵝洲: 거제현)다.²⁾ 28세인 1684년에 생원, 진사시 양시에 합격했으나 문과에 실패하여 관직에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가계(家系) 인물 가운데 효자가 많아 읍지(경상도 읍지)에 많이 등장했으며, 의성 지방에서는 명적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진다. 저술로는 『우열녀전(禹烈女傳)』이 있으며, 『처변권형(處變權衡)』(1695, 필사본, 4권 2책)³⁾이 성균관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다.

II. 문서의 형식과 시대적 배경

이 문서는 전책(殿策)⁴⁾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임금은 이렇게 말하노라 [王若曰]’로 시작하고 ‘신은 답합니다[臣對]’로 끝을 맺고 있다.

책문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노라.

울릉도가 멀리 동해(東海)에 있는데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강원도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 땅이라고는 하나 수로가 멀고 험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아[人煙不通], 조종조에 섬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刷還洲民]

그곳을 비게 하였다[遂虛其地]. 요사이 일본인이 대나무와 전복, 물고기 등의 이익을 탐해 죽도(竹島)라 가칭하고 그 땅에서 우리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가 어채하는 것을 금해줄 것을 청했다. 근시(近侍)를 자주 파견하여 죽울(竹鬱)⁵의 허실과 경계에 구분 있음을 효유(曉諭)했으나 끝내 들을 생각이 없어 자못 불화(生梗)의 단서가 있다.

내가 이를 염려하여 널리 조정의 의견을 물으니 흑자는 말하기를 “조종의 강토는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인데,⁶ 한번 그들의 소유가 되면 동쪽 경계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타고 출몰하면 실정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변수(邊帥)를 가려 보내 우선 접거해 지키는[撫守]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고, 흑자는 말하기를, “바다 밖 조그만 섬은 본래 빈 땅인데 백 년 간의 인호(隣好)⁷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만드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니, 그들의 왕래를 내버려두고 변방 방비(邊備)를 수칙(修勅)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설 중 어느 쪽이 나은가? 아니면 이 외에 따로 만전(萬全)의 양책(良策)이 있는가? 자대부(子大夫)들은 독서하고 담도(談道)하는 여가에 반드시 ‘변방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평안히 할 방책[安邊靖國之獻]’을 강구하여 각자 자세히 대책에 나타내도록 하라. 등(騰)⁸

신덕함의 대책은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신은 답합니다.

신은 듣건대, 보국(保國)의 도는 심세(審勢)에 있고, 집사(集事)의 기틀은 득인(得人)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형세를 잘 살핀다면 보존하지 못할 나라가 없고, 적임자를 얻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책문에 대한 신덕함의 대책은 서두에 ‘심세득인(審勢得人)’으로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과거시험에 나오게 된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즉 왕이 이 문제로 깊이 근심하고 필사(拂士)들에게 널리 자문을 구했으나 아직도

빠뜨리거나 실의(失宜)한 점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 문제를 시험에까지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왕이) 친히 대정(大庭)에 임하여 많은 선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내어 만전의 계책을 듣고 싶어했다.”는 표현은 왕이 직접 전시(殿試)에 참여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시란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행하던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 여기에서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했다. 보통 식년시로 3년에 한 번 치르게 되어 있으나 증광전시와 같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는 특별히 시행되기도 했다.

신덕함의 문서에는 언제 출제된 것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숙종 연간 치러진 전시 기록을 보면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실록에 ‘울릉도 쟁계’를 전후하여 치러진 전시에 관해서는 모두 3건이 나온다. 숙

5 죽도와 울릉도.

6 『숙종실록』 1694년 2월 23일자 기사에 남구만의 말로 나온다.

7 『숙종실록』 1695년 6월 20일자 기사에 의하면, 남구만이 일본의 개작 서계를 거절하자 차왜 다치바나가 한 말로 나온다.

8 ‘책문’ 뒤에 ‘등(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신덕함이 전시에 응시했을 때 나온 문제를 베낀 것임을 나타내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가져온 기출문제를 베낀 것 혹은 예상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전시가 있었고 시험문제가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출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9 『숙종실록』 20년(1694) 2월 23일자 기사에 남구만이 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

10 『숙종실록』 21년(1695) 6월 20일자 기사에 일본이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11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쓰시마가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거짓 칭하고, 예도의 명이라고 핑계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종 21년(1695) 9월 19일 별시(別試) 전시로 11인을 뽑았고, 숙종 22년(1696) 11월 21일 식년 전시에서 35인을 뽑은 적이 있으며, 숙종 25년 즉 1699년 4월 22일 문과 식년 전시에서 40인을 뽑은 사실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책문이 나온 시기는 1695년, 1696년, 1699년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책문에서 조종의 강토를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한 말이 인용된 것,⁹ 백 년 간의 인호(麟好)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실,¹⁰ 그리고 조정에서 이 문제로 숙종과 대신 간의 회동이 잦았던 시기가 1695년 10월경인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1695년 9월의 전시일 가능성은 적다. 또한 책문에 임금이 근시(近侍)를 자주 파견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고 사료의 1696년 10월 13일자 기사¹¹가 언급된 점으로 볼 때

1696년과 1699년 전시 중에서도 1696년 전시일 가능성이 크지만 확실한 것은 알기 어렵다.¹²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과거시험에까지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런 책문이 나오기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자. 1693년 봄에 울산과 동래 어부 약 40여 명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 어부와 만나 충돌이 빚어졌다. 이때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으로 납치해 갔다가 조사 후 11월 초에 조선으로 돌려보내면서 조선 어민의 울릉도 출어를 금지하는 서계를 함께 보냈다. 이로부터 양국 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1693년 11월 일본이 안용복을 돌려보내면서 조선인의 울릉도 출어 금지를 요청한 서계를 보내옴으로써 시작된 영유권 갈등은 1694년 1월 15일 권해의 회답서계 사본이 다치바나 마사시게[橋 眞重]에게 전해지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쓰시마 번으로 돌아갔던 정관 다치바나가 1694년 중반에 다시 오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694년 윤 5월 왜관에 도착한 다치바나는 앞서 조선 정부의 답서에 등장한 ‘귀계(貴界) 죽도(竹島), 폐경(弊境) 울릉도(鬱陵島)’ 부분의 삭제를 요청해왔고, 조선은 집권세력이 바뀌면서 일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1694년 8월에 동래로 내려간 접위관 유집일은 ‘일본인 왕래를 금지한다.’고 고쳐 쓴 이른바 ‘개작 서계’를 지참하고 내려갔다. 이때 동래에서 유집일은 안용복을 심문하여 안용복이 나가사키에서 침책당한 사실과 쓰시마의 농간을 폭로한 정상을 알아냈고, 9월에는 조정에서 무신 장한상을 파견하여 울릉도를 조사시키기도 했다.

12 다만 1699년 4월의 전시일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이때는 일본으로부터 도해금지령이 조선에 공식적으로 전해진 뒤이고, 『숙종실록』 1697년 4월 13일자 기사에도 유상운이 “울릉도에 대한 일은 이미 명백하게 한 곳으로 귀착되었다.”라고 하고 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전시에 낼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3 『숙종실록』 21년(1695) 6월 20일.

유집일로부터 개작 서계를 전달받은 다치바나 마사시게는 1693년의 서계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왜관에 머물러 있다가 쓰시마 번주의 병사에 따른 귀국조치로 인해 왜관을 떠나게 되었다. 1695년 6월 10일 다치바나는 왜관을 떠나면서 4개조의 힐문(詰問)을 동래부사 앞으로 보냈다. 이때 그는 답서를 두고 돌아가면서 “양국 화호(和好)는 답서를 화관(和館)에 남겨 두는 데 있었습니다. 답서가 한 번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두 나라는 백 년 우호를 상실할 듯합니다.”¹³라고 하였다. 이를 두고 조선 조정에서는 제2의 임진왜란이 다시 일어날까 염려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안용복 일행이 비변사 취조를 받게 되는 시기는 1695년 9월이고, 쓰시마 번주가 에도 노중에게 안용복 사건을 보고하는 시기는 1695년 10월 경이다. 그리고 에도 막부가 돛토리번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조사를 지시하는 시기는 1695년 12월 중순이다.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에는 숙종이 ‘울릉도 쟁계’로 인해 냉각된 대일 관계와 안용복의 처리를 둘러싸고 조정 대신들과 논의한 사실들이 1694년 2월부터 1696년 10월에 걸쳐 여러 건 실려 있다. 조정에서 안용복 사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는 1695년 가을부터였고 일본의 분위기가 조선에 전해진 시기도 1695년 가을 경이다. 책문과 대책 안에 안용복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숙종이 이 사건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음은 책문의 행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울릉도 쟁계’ 자체를 과거시험 문제로 출제한 것은 안용복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Ⅲ. 질문과 답안 내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보면 당시 조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시험문제[策問]를 통해 숙종의 ‘울릉도’ 인식을 살펴보자.

王若曰鬱陵島迫在東海中輿地勝覽屬之江
 原道雖云我國地而水路險遠人烟不通 祖宗
 朝刷還逃民遂虛其地矣近來倭人貪其餘湯
 鱖魚之利假名竹鬱指為厥土請禁我民越境
 漁採屢違近侍狀論竹鬱之虛宗境界之有屬
 而終無聽順之意頗有生梗之端予用是慮廣
 詢朝議則或以為 祖宗疆土不可與人而一為彼
 有則東界無蔽候風出沒情偽難測莫如擇遠
 邊帥先自振守或以為海外小島自是空地而
 百年隣好不可相失因此構譽非計之得莫

〈그림 1〉 시험에 출제된 문제

숙종은 동해상 울릉도를 강원도 소속의 분명한 우리 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로가 험하고 먼 까닭에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른바 '쇄환정책[刷還洲民]'을 취한 결과 섬이 비게 된 것[遂虛其地]일 뿐 우리 땅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은 그 사이를 틈타 울릉도의 자원을 탐내 울릉도에 죽도라는 다른 이름을 붙여 우리 백성의 어채를 금해줄 것을 청했다. 이에 숙종은 죽울(竹鬱)의 허실과 경계에 구분 있음을 일본인에게 자주 효유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당시 숙종이 울릉도를 죽도로 가칭하여 취하려던 쓰시마의 농간을 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실들이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남아 있어 책문과 부합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조정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었다.

如任其往未修初邊備而已惟此二說何者焉
 得而抑此外別有為全之良策數子大夫讀
 書談道之餘必講安邊靖國之敵其名悉著
 于篇勝
 臣對臣聞保國之道在於宿勢集李之機係於
 得人能審其勢則固無不保苟得其人則李固
 不集是以漢元之奔殊在遠於慶土損威而中
 國得以無虞者以其宿勢而服之也齊威之用
 田於不過守邊更而趙人不敵東漁者以其得
 人而任之也此豈非用事之明驗而後王之可監

〈그림 2〉 시험문제에 대한 대책

하나는 변수(邊帥)를 보내 우리 쪽에서 먼저 울릉도를 점거하여 지키지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우호가 더 중요하니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허용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변방의 방비를 잘하도록 신칙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숙종은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나은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과거에 출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숙종은 자대부들에게 '변방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평안히 할 방책[安邊靖國之猷]'을 자세히 쓰도록 했다.

답안지에서 신덕함은 책문에 제시된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신덕함이 제시한 방법은 이른바 '심세득인'의 설(說)이다. 그는 자신의 설을 개진하기에 앞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는 조종조가 울릉도 쇄환정책을 편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어서일 뿐 우리 땅을 포기해서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우리 백성들의 왕래가 끊어

저도 울릉도에는 여전히 초목과 물고기류가 풍부하여 일본이 물산과 땅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다. 신덕함은 일본이 울릉도를 죽도라 가칭하며 조선인의 어채 금지를 요청하여 우리를 시험해보려는 계책은 그 마음과 말이 매우 교활하고 방자하다고 보았다. 이런 일본인에게 덕으로 대하고 사신을 보내 허실을 분변해도 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탐욕 또한 끝이 없어 두 나라 간 갈등이 생기리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진대 조정의 대신들이 제시한 두 가지 방책은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신덕함의 주장이다.

신덕함에 의하면 첫 번째 방법 즉 '변수를 보내 점거하여 지키자'는 방법은 울릉도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쓸모없는 섬인데다 우리 군사들이 수로에 익숙하지 않아 가다가 표류하거나 역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경지정(守經持正)'한 의논이긴 하지만 실패하기 쉬운 계책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 즉 '그들의 왕래를 허용하고 우리가 변방 방비를 잘하지는' 방법은 일본처럼 국가 간 성약(成約)을 잘 지키지 않고 끝없이 남의 땅을 넘보는 탐욕스런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심세권의(審勢權宜)'한 의논이긴 하지만 좋은 방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방책을 쓴다면 일본은 기탄하는 바가 없어서 작계는 공갈하여 요구하는 폐단[恐喝徵索之弊]이 있을 것이고, 크게는 기회를 엿보아 삼켜버릴 근심[覬覦吞噬之患]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신덕함의 대일관은 기본적으로 교활한 일본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일관 위에 펼친 그의 방책은 조정 신하들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일본의 울릉도 점거 책략에 맞설 수 있는 대책은 '형세를 잘 살피고[審勢] 적임자를 얻어 처리하는[得人] 방법'만이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심세' '득인'의 요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다. 신덕함에 의하면, '형세를 잘 살피는 방법'에는 세 가지 요체가 있다. 바로 지세(地勢), 시세(時勢), 병세(兵勢)를 살피는 것이다. 바닷길이 험한 지역에 보낼 때는 뱃길과 노 젓는 일에

익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지세를 잘 살핀 것이며, 기근이 거듭되어 백성이 죽어갈 때는 땅을 개척하는 데 백성을 부리지 않는 것이 지세를 잘 살핀 것이며, 병력이 약할 때는 군사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을 오랑캐에게 내몰지 않는 것이 병세를 잘 살핀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임자를 얻는 방법’에는 세 가지 요체가 있는데, 바로 상신(相臣), 수신(帥臣), 사신(使臣)을 얻는 것이다. 오랑캐가 조정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재상의 임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상신이며, 국경의 범위가 줄지 않도록 장수가 위엄으로 제대로 대적하는 것이 올바른 수신(帥臣)이며, 일본의 요구를 잘 물리치는 것이 사신을 제대로 얻은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가 내린 ‘안변의 대책’은 ‘심세득인’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 조목만 잘 실행된다면 일본이 울릉도를 노릴 이치가 없는, 이른바 ‘만전의 양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외양(外攘)’을 위한 대책이므로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수(內修)’라고 보았다. 신덕함이 보기에 “안을 닦는 것은 본(本)이고 밖을 물리치는 것은 말(末)인지라”, “내수를 다한 뒤에 외우(外憂)는 자연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 임금은 내수에 힘써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는 한, 울릉도를 가지고 일본과 다투는 문제는 “탄환만 한 조그만 땅을 가지고 바닷속에서 다투고 있는” 형상에 불과하다. “땅을 넓히려 힘쓰는 자는 황폐[荒]해지고, 덕을 넓히려 애쓰는 자는 강(疆)해진다고 했으니, 아! 전하께서는 힘쓰십시오.”라는 진언으로 마무리된 그의 답안지는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IV. 사료의 역사적 의미

신덕함은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다. 동시대 다른 응시자 혹은 급제자의 답안지가 현재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신덕함의 논지를 다른 것과 비교해보

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신덕함의 답안지로 우리가 이 사료의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울릉도 쟁계’가 과거시험에 출제된 사실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고, 다른 하나는 답안지 내용이 지니는 의미다.

우선 첫 번째 의미와 관련해서는 이 책문의 존재가 당시 ‘울릉도 쟁계’가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는 점이다. 보통 왕이 내는 책문은 국가경영의 방도로써 개혁의 방책 내지 현안을 묻는 경우가 많아 이 범주에는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망라되었고 응시자의 대책 역시 이에 대응하는 답변이므로 임금에게 가장 절실한 답변을 제공하되 유학적 사고에 따른 원칙론을 개진한 것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숙종 연간의 전시에 ‘울릉도 쟁계’가 시제로 나왔다는 사실은 당시 숙종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일본의 침탈 의도를 간파했음은 물론이고 울릉도 침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 의미와 관련해서는 신덕함이 현안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데 비해 답안은 그다지 현실적인 방책이 되지 못했고, 결국 이런 원칙론은 적극적인 울릉도 개척론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울릉도 쟁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울릉도)뿐만 아니라 마쓰시마, 즉 독도를 한 세트로 다루어 두 섬 모두 일본 이나바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결과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동해상의 울릉도 범주 안에 ‘독도’를 포함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존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료가 지니는 가치는 ‘울릉도 쟁계’ 관련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등을 비롯한 관찬 사서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책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국가적인 중대사였는가를 상기시켜주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릉도 쟁계’ 당시 관찬 사서 외에 개인 문집에 남아 있는 글로는 1977년에 발굴된 장한상(1656~1724)의 「울릉도 사적」과 2001년에 알려진 박세당(1629~1703)의 미간행 문집 안의 「울릉도」가 알려져 있다. 박세당은 안용복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남구만이 그의 처남인 점에서, 그리고 장한상은 안용복 사건이 계기가 되어 1694년 가을에 어명을 받고 울릉도를 수토한 자라는 점에서 둘 다 이 사건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장한상의 글은 경상북도 의성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책문 역시 의성지역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사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해본다.